

▶법회 및 기도 안내◀

- 일요법회: 매주 일요일 오전 11:00 - 12:30
- 어린이 법회: 일요일 오전 11시
- 청년(선우회) 법회: 일요일 오후 14시
- 어린이 한글학교: 토요일 오전 9시 30분

▶공지사항◀

- 12월 31일 2014년 송년법회
불타사 관음전 pm 10:00,
기도 및 108참회, 오전 12:30분 떡국공양.

2015년 신년 특별 법회안내

- 1월 4일(일) 주지스님, 신년법회
- 1월 11일(일) 화공스님, 불교학 박사
- 1월 18일(일) 선학스님, 한의학 박사
- 1월 25일(일) 현전스님, 북경대 박사

▶기도 동 참 (12월21일 - 12월27일)◀

- 법등: 김승한 최순용 김미경 무명 박영규 강용석
- 인등 만등: 최순용
- 기도: 김승한(동지) 이원규 조재이 김형주 진여성
- 보시: 진여성
- 대중공양: 이현심화(과일) 장진여성(떡) 불국화
이미나(꽃)

- 회주: 현성스님
- 주지: 성향스님

일요법회

불기 2558(2014)년
12월 28일 제21호

4360 W. MONTROSE AVE., CHICAGO, IL, 60641 T:773-286-1551



부처님 말씀

바람을 마주하여 먼지를 털면

그 먼지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듯이

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면

그 미움은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온다.

미워하는 사람이나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는

사람은 그 누구든 재앙을 벗어나지 못하나니

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.

그것이 원수를 항복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.

- 범구경 -

12연기(緣起), 12/28/2014

12. 노사(老死, 영어: aging (old age), decay and death)

『잡아함경』 12권 298경 법설의설경(法說義說經)에 따르면, 노사(老死)는 노(老)와 사(死) 즉 늙음과 죽음을 통칭하는 말이다.

노(老) 즉 늙음은 털이 하얗게 세고 정수리가 벗겨지며, 피부가 늘어지고 5근[根]이 문드러지며, 4지[支]가 약해지고 등이 굽어지며, 머리를 떨어뜨리고 끙끙 앓으며, 숨이 짧아져 헐떡이며,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, 몸이 검게 변하며, 정신이 희미해져 있으며, 거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쇠약해지는 것을 말한다.

사(死) 즉 죽음은 각각의 중생(衆生)이 해당되는 무리로부터 사라지고 천이(遷移)하며, 몸이 무너지고, 수(壽)가 다하고, 따뜻한 기운[火]이 떠나고, 명(命)이 소멸하여, 음(陰: 5온)을 버릴 때가 온 것을 말한다.

생(生)이 있으므로 노사(老死)가 있다는 것은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늙음과 죽음이 있다는 것으로, **열반에 이른 상태가 아닌 한 생사윤회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.** 또한 이미 발생한 노사(老死) 즉 늙음과 죽음이 있다면, 반드시 그 기본 전제가 되는 생(生) 즉 태어남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. 그리고 이러한 연기관계를 통해 생사윤회가 반복된다는 것을 뜻한다.

2014년을 보내고 2015년 새해를 맞으며..

